

미주밀알선교단 신임 이사장에 이영선 목사 위촉

신뢰와 투명성 바탕
지역 교회와 연합 사역 제고

미주밀알선교단(총단장 애틀란타밀알 최재휴 목사)이 신임 이사장과 부이사장으로 미주복음방송 사장인 이영선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를 각각 위촉했다.

미주밀알선교단은 지난 23일,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열린 언론사간담회에서 신임 이사장단 위촉을 알리며, 미주지역 교회와 협력해 장애인 선교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이사장 이영선 목사는 취임 소감에서 “미주밀알선교단은 지역 교회와 연합해, 장애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교회와 사회를 꿈꾸고 있다”며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교회와 함께 장애인선교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세우며,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이사장 권준 목사는 “우리의 교회와 사회에서 장애인들 역시 공동체의 일원임을 일깨우며 장애인과 장애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좌부터 미주밀알선교단 부총단장 장영준 목사, 부이사장 권준 목사, 이사장 이영선 목사, 총단장 최재휴 목사, 사무국장 김정기 목사 ©기독일보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일에 힘쓰고자 한다”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밀알 사역의 새 시대를 여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밀알선교단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맞아 장애인 선교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복지와

구제, 계몽 등 장애인 대면 사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총단장 최재휴 목사는 “예수님께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셨던 것처럼, 장애인들은 우리 교회와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대상”이라며 “

미주밀알선교단은 장애인 선교 활성화에 앞장서고,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주밀알선교단은 장애인들에 대한 전도, 봉사, 계몽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선교단체로,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하고, 장애인으로 겪어야 하는 연약함과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 보다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정립하도록 선도, 계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주밀알선교단은 1987년 필라델피아에서 처음 사역이 시작됐으며, 미국 전역과 캐나다, 남미로 사역을 확장해, 현재 미주총단 산하 미국에 10개 지단과 3개 지소, 캐나다에 2개 지단, 중남미에 3개 지단, 1개 지소 등 총 15개 지단과 4개 지소가 긴밀히 협력하며 현지 주민들과 동포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美 남침례회 “여성 목사 허용한 새들백교회와 교류 단절”

미국 남침례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가 여성에게 목사직을 허용한 새들백교회(Saddleback Church)를 비롯한 5개 교회와 교류를 단절하기로 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SBC 집행위원회는 21일 SBC 자격심사위원회(SBC Credentials Committee)의 권고를 받아들여 5개 교회가 여성 목사직을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 “남침례회 협약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여성 목사직 허용으로 새들백교회와 더불어 제명 처분을 받은 교회는 조지아주 그리핀의 ‘뉴 페이스 미션미니스트리’(New Faith Mission Ministry),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세인트 티모시 크리스천 침례교회’(St. Timothy’s Christian Baptist Church), 미시시피주 잭슨의 ‘갈보리 침례교회’(Calvary Baptist Church), 켄터키주 루이빌의 ‘펀 그

릭 침례교회’(Fern Creek Baptist Church) 등이다.

해당 교회들은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릴 예정인 SBC 연례 총회에서 이에 항소할 수 있다.

SBC의 자레드 웰만(Jared Wellman) 집행위원장은 뱀티스트프레스(BP)에 성명을 내고 “그 교회들이 계속해서 여성 목사직을 허용하고 있기에 있기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침례교 신앙 및 메시지 2000’ 제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SBC는 목사직이 성경에 의해 자격을 갖춘 남성에게만 국한된다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교회들은 수 년 동안 가치 있는 협력 교회였으며, 이 결정은 가깝게 내려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SBC의 신학적 신념을 지지하고 협력하는 교회들 사이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BP에 따르면, 자격심사위원회는 교류 단절 이유로 새들백교회 스테이시(Stacie) 담임목사의 역할도 언급했다.

새들백교회는 2021년 5월 리즈 퍼퍼(Liz Puffer), 신시아 페티(Cynthia Petty), 케이티 에드워즈(Katie Edwards) 등 세 명의 여성을 목사로 안수하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또 리 워렌 목사는 작년 은퇴를 앞두고 앤디 우드(Andy Wood) 목사를 새들백교회 담임으로, 그의 아내 스테이시 우드(Stacie Wood)를 교직 목사로 지명했다.

이에 2021년 6월 SBC 연례회의에서 새들백교회와 교류를 단절하자는 결의안이 청원됐으며, 이는 SBC 자격심사위원회로 전달됐고, 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해 열린 연례회의에서 이에 대한 결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앤디 우드 목사는 지난 10월 BP와의 인터뷰에 “우리는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는 다른



새들백교회는 2021년 5월 6일 처음으로 여성 목사 안수를 했다. ©새들백교회

SBC 교회와 연합하고 교류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들백교회는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에 대한 강한 헌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접근 방식이 성경적이며 신약의 가르침과도 일치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터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미국 ↔ 한국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리밍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정확하고 최고로 빠른 리퍼! 5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의 진료 수준 별 5개의 최우수 등급 메디칼 그룹!

시니어분들이 건강 영웅! 서울메디칼그룹

메이저 리그 코리안 특급 박찬호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TEL 213.389.0077 • 800.611.9862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 메디칼 그룹의 모델 촬영을 맡아드립니다.

빛고을농원 고랭지 매실, 목회자 건강 위한 최고의 선물

‘빛고을매실농원’(대표 황태수)이 미주 한인목회자들의 건강 개선을 돕기 위해 해발 5000피트 고랭지에서 자란 청정매실 효소를 공급한다.

LA 북동쪽에 위치한 고지대 필랜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청정매실은 효능과 약효가 뛰어나며 병충해가 없어 더욱 안전하다. 특히 고랭지에서 자란 매실이라 맛과 향이 일반 매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신맛이 덜한 반면 향이 풍부하고 새콤달콤한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과 건강을 사로잡았다.

1천100여 그루의 매실나무에서 싱그러운 자태로 수확된 매실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C, 비타민 A, 칼슘, 칼륨, 철, 마그네슘, 인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매실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C는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누적된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 회복에 탁월하다.

매실은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기능을 개선시켜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변비 예방 및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매실은 오래 전부터 배탈, 소화불량 등의 위장질환에 폭넓게 사용됐다. 또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 혈관계 질환예방에 효과적이다.

매실은 강한 항염작용을 가지고 있어 염증성 질환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이며, 폴리페



천매 효소의 우수한 효능을 소개하는 빛고을매실농원 황태수 대표 ©기독교일보

놀과 안토시아닌 같은 강한 항산화 물질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도움이 되며, 세포 손상을 줄이고, 암, 심장병, 노화, 콜레스테롤 등 다양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도 효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매실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칼륨은 신체 내 염분을 배출하여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실은 고혈압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주며, 고혈압 환자들에게 권장되는 식품 중 하나이다. 이외에도 산도가 높아 강력한 살균작용으로 독성물질을 분해해 식중독, 배탈 등 음식으로 인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도 효과적이고 간 보호 및 간 기능 개선, 노화예방, 성인병 예방에도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

빛고을매실농원에서 판매되는 매실 효소

에는 설탕이 매우 적게 들어간다. 당도가 높은 매실 자체에서 과일당이 나오기 때문에 설탕을 적게 넣어도 단맛이 많이 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에게 추천할만 하다.

황태수 대표는 “지금까지 빛고을 농원의 질 좋은 고랭지 매실을 복용하신 목사님들은 모두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확인하셨다”며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매실로 목회 사역에 활력이 살아나고 다양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던 황 대표 역시 매실 효소를 통해 모든 건강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치유를 경험했다.

황 대표는 “매실은 목회자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과로와 당뇨, 소화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며 “미주 한인 목회자들이 매실을 드시고 건강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매실 효소액은 한병에 28달러이며, 천매효소는 35달러다. 매실 효소액 구입 문의는 전화 213)284-4858로 할 수 있다. LA 지역은 배달이 가능하며 타주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받을 수 있다.

◆ 빛고을농원 주소:
8671 Deer Haven Dr. Pinon Hills CA 92372
◆ 문의: 213) 284-4858

김동욱 기자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세상 위해 땅끝까지”

2023년 아버지학교
미주대회 LA에서 개최

2023년 아버지학교 미주대회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LA온누리교회(담임 이정엽 목사)에서 열렸다.

그동안 펜데믹으로 대면 모임이 중단됐다가 3년 만에 개최된 아버지학교 미주대회에는 미주 전역에서 모인 아버지학교 동역자들이 참가해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아버지학교 운동 확산에 헌신을 다짐했다.

아버지학교 미주대회는 아버지학교의 지난 사역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결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가정과 사회를 바로 세우는 아버지학교의 비전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땅끝까지 나아가겠다고 결단했다.

또한 올해 대회에는 LA 지역 라티노 아버지학교 수료자들도 참석해 아버지학교 다민족 사역에 대한 확장 및 협력의 계기를 다졌다.

첫날 저녁집회를 인도한 국윤권 목사(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 지도목사)는 “아버지 학교가 가정회복의 비전을 불붙고 지금껏 수많은 사람과 영혼을 회복시켰듯,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학교를 통



LA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 2023년 아버지학교 미주대회 기념촬영 ©기독교일보

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며 “아버지학교 운동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나아가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더욱 크게 쓰임 받길 기대한다”고 소망했다.

국 목사는 이어 “아버지학교 운동은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나아가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학교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대회에서는 미주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 신임 사무국장으로 이영운 장로(

시애틀형제교회)가 취임했다.

이영운 장로는 “아버지학교를 통해 미주 지역에 건강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자 한다”며 “한인들을 비롯해 미주 지역에 다민족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주 아버지학교는 2000년 포틀랜드와 시애틀에서 시작되어 전 미주로 확산됐다. 지금은 미주 지역뿐 아니라 중남미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표어 아래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회복운동을 지향하고 있다.

남가주한의사협의회, 키르기스스탄으로 의료봉사 떠난다

남가주한의사협의회(회장 정종오)에서 오는 4월 17일부터 29일까지 키르기스스탄으로 의료봉사를 떠난다. 한의사를 비롯 간호사, 약사, 목사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선교회팀은 지역 선교사와 협력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원래는 예수님의 행적을 좇는 성지순례로 기획되었지만 튀르키예 지진 소식을 듣고 의료봉사로 전환하게 된 것.

남가주한의사협의회 이사인 류당열 목사는 “지난 1997년 튀르키예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남가주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교회 반주자의 찬송가 연주 가운데 ‘배 타고 떠나라’는 구절을 듣고 순종해 의료봉사를 나선적이 있다. 당시 비행기 표 값만 1만불가량 들었는데, 자체적으로 모금해서 외국인 의사 12명과 함께 고생하면서 사역했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 소식을 듣고 새벽에 기도하던 중 다시 한번 ‘너 근심 걱정 말아라’는 말씀을 강하게 주셔서 이번 의료봉사 팀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료봉사팀은 4월 16일 파송예배를 기획하고 있다.

◆ 후원 및 협력 문의:
류당열 목사 213-505-1947

김민선 기자



지난 3년간 코로나 펜데믹으로 교회와 목사님들이 힘들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될 때가 되었으므로 디모데 목회훈련원에서 전도집회 및 특강을 준비하고 아래와 같이 초청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PTSI 디모데목회훈련원 원장 이용걸 목사 (필라델피아장로교회 원로목사)
Pastoral Training & Supporting Institute For Church Growth www.ptsimission.org

주관: 디모데 목회 훈련원
후원: 나성한인교회, 가주노회, 남가주노회, 동가주노회, 로스앤젤레스노회, 서가주노회, 서남노회, 북미주 서노회

전도간증집회

“이제는 전도다”
강사: 이영희 전도사
한울교회 전도사
여러교회 전도집회 인도
8000명을 전도하신 분
일시: 3월17일(금) 오후 8시
3월18일(토) 오후 7시

특 강

“바울의 영성과 목회철학”
강사: 이용걸 목사
총신대학 및 총신연구원 졸업
PA Eastern College 졸업
웨스트민스터 졸업(선교학 석사, 목회학 박사)
필라델피아장로교회 개척, 35년 사역
필라델피아장로교회 원로목사
일시: 3월20일(월) 오전10시-오후3시
장소: 나성 한인교회 (신동철 목사 시무)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등록 및 문의: 김만식 목사
714-893-7404 Email: lacpckm@gmail.com
*점심식사 및 기념품 준비를 위해 3월15일 까지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G&E, SCE 및 SDG&E 전기를 사용하는]

교회가 솔라를 설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3월 15일까지

[인터뷰] BTS 솔라 디자인 폴 김 대표

요즘 태양광 솔라 설치가 붐이다. 평소 설치 주문보다 3~5배 가량 주문량이 폭주하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BTS 솔라 디자인의 폴 김(Paul Kim) 대표를 만나보았다. 그는 PG&E나 에디슨 전기를 사용하는 교회의 경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마가교회 선교목사이기도 한 폴 김 대표는 교회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면, 가능한한 모든 교회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전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가능한 많은 교회들이 솔라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하는 일문일답.

◆ 안녕하세요 대표님. 3월 15일이 지나면 교회는 솔라 설치가 불가능한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 여전히 가능하지만, 4월 14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NEM 3.0 시행으로 교회가 태양광(솔라)를 설치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이익(투자대비 효과)이 거의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하지 않으면 사실상 기회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아 그렇군요, 그런데 NEM 3.0은 무엇이고, 4월 14일 이후부터 적용되는데 왜 3월 15일까지가 마지막 기회라고 하시는지요?

우선, 교회나 커머셜에 대해서는 솔라 설치 프로세스(신청서)를 진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던 시간이 평소 2주가량이었는데, 요즘은 주문량 폭주로 인해 소요시간이 4~5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이전에 결정을 하지 않으면 4월 14일 이전에 퍼밋 신청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NEM 3.0이라는 것은 Net Energy Metering 의 새로운 버전으로 2022년 12월 15일 CPUC(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에서 만장 일치로 결정된 태양광 관련 새로운 정책입니다.

◆ NEM 3.0은 이전 버전인 NEM 2.0과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전기는 다 Grid를 통해서 전기회사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에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사용할 때는 플러스(+방향)으로 미터(Meter)가 돌고, 전기를 생산해서 Grid에 보낼때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새롭게 시행될 NEM 3.0 과 지금 현재 NEM 2.0 의 차이는 전기요금에 있습니다. NEM 2.0 에서는 전기회사가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갈 때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기료와 같은 비용으로 전기

를 사갔습니다. 예를 들어, 에디슨과 같은 전기회사가 소비자에게 킬로와트(Kwh) 당 36센트의 비용으로 전기를 공급했다면, 태양광을 설치한 오너에게도 생산된 전기에 대해서 킬로와트(Kwh) 당 36센트의 비용을 주고 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NEM 3.0 이후부터는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일괄적으로 킬로와트 당 4센트만 주고 사가겠다는 것입니다.

◆ 아.. 거의 횡포 처럼 보이네요. 그러면 전기회사에 전기를 팔지 않고, 교회에서 다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전기회사에 보낼 필요없이 다 사용하면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에서 태양광으로 전기가 생산되는 낮 시간에는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 전기가 생산되지 않는 새벽시간, 저녁시간, 그리고 주일 오전에 대부분의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전기회사에 보내지 않고 보관하려면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배터리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는 것입니다. 11킬로와트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가 제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15,000불 가량입니다. 한 달 전기비로 240불 가량 내는 가정에서 하루 전기 사용량이 약 22킬로와트 정도 합니다. 즉 배터리팩 하나로는 하루치의 가정용 전기 사용량 저장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교회는 50%이상의 전기를 주일에 사용합니다. 주중에 태양광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배터리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격이지요. 그래서 NEM 3.0 이 시작되기 전에 태양광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렇군요, 그럼 4월 14일까지 신청서 접수만 되면 NEM 3.0이 소급 적용되는 않나요?

네 소급적용 되지는 않습니다. 4월 14일까지 전기회사에 솔라패널 설치 도면을 그려서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퍼밋 신청만 하면 NEM 2.0으로 적용됩니다. NEM 2.0 에 따라 설치된 태양광 시스템은 20년 동안 유지됩니다. 다만, 솔라패널 설치 계획서 도면을 그리는데 4~5주가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 아 그래서 3월 15일까지가 마지막 기회라고 하시는군요. 그러면 이것은 모든 전기회사에 다 적용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PG&E(Pacific Gas & Electricity), SCE(Southern California Edison), SDG&E(San Diego Gas & Electricity) 가 해당됩니다. LA 지역은 대체로 LADWP 가 많구요. 오렌지 카운티(OC)의 경우, 애너하임(Anaheim)



BTS 솔라 디자인 폴 김 대표 ©기독일보

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이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OC지역에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반드시 태양광 설치 효율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고 기회를 놓치는 교회가 있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가능하다면 모든 교회가 다 하게 좋지 않을까요? 태양광 패널의 효율성이 없는 곳도 있나요?

경우에 따라서 효율성이 안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 건물의 지붕이 남향으로 되어있지 않고 동서방향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뾰족한 형태로 되어있으면 전기 생산 효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지붕형태가 독특하게 되어있는 경우, 솔라패널 공사 비용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소요되는 비용 대비 전기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비용대비 전기 생산 효율성을 알아볼 수 있나요?

우선은 현재 교회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을 알아야합니다. 대략 6개월 분의 전기 고지서를 문자(213-500-8000)나 이메일(btssolardesign@gmail.com)을 보내주시면, 얼마나 많은 패널이 어디에 설치되는 것이 좋은지, 또 전기 생산량은 얼마나 나올지 계절별로 일조량(지역마다 다름)을 분석해서 예상치를 분석합니다. 거의 98%이상 정확하게 분석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대비 전기 생산량이 나오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태양광을 설치할 하든 하지 않든, 이번에 효율성을 따져보고 결정할 기회를 갖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교회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세요

수 있나요?

사실 교회 상황에 따라 천차 만별이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 지붕이 패널 설치가 용이하고 남향으로 되어있는 경우, 비용대비 효과는 3배 정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100불 비용으로 300불에 해당하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셈입니다.

◆ 다른 솔라 업체들과 다른 BTS 솔라만의 차별점이 있습니까? 솔라 패널 설치를 BTS를 통해서 하면 좋은 장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저희 BTS 솔라는 교회가 패널을 설치할 경우, PPA 프로그램을 통해 타사 대비 30% 싼 가격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아 그렇군요, 파격적이네요. 이걸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개인 주택이나 커머셜에도 태양광 패널 설치에 관심이 있을텐데요. 3월 15일 지나면 교회처럼 태양광 패널 설치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인가요?

개인 주택이나 커머셜도 NEM 3.0의 영향은 받게 되지만, 교회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평소 매일매일 전기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가 되더라도 배터리만 설치한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주택이나 커머셜도 NEM 2.0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의 경우 4월 초순까지, 커머셜의 경우 교회처럼 3월 15일까지 결정을 해서 퍼밋 신청을 들어가면 NEM 2.0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 여러가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와 한인들이 가능하다면 태양광으로 환경도 살리고, 전기비용도 아껴서, 영혼구원과 이웃사랑에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민선 기자



김양재 목사와 함께하는

제2회 미주 THINK 목회 세미나

■ **일시:** 2023년 3월 9일(목)-11일(토)
 목: 2pm-9:20pm, 금: 10am-9:20pm, 토: 10am-3:30pm

■ **장소:** ANC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태형)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 818-834-7000



■ **강사:** 김양재 목사 (우리들교회 담임)

■ **참가자격:** 담임목사와 동반하는 사모, 부교역자, 평신도지도자
 (사모, 부교역자, 평신도지도자는 담임목사 없이 개별적으로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단, 이전 큐티목회 세미나 참석교회는 개별참석이 가능)

■ **회비:** \$50 ■ **주최:** 미주 QTM

■ **김양재 목사 말씀집회 일정** * 아래는 THINK 목회 세미나와 다른 말씀집회 일정입니다.

<p>3/5(주일) 만남의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1부: 8am, 2부: 10:30am, 특강: 1:30pm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 818-882-9191</p>	<p>3/12(주일) ANC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태형) 1부: 7:30am, 2부: 9:30am, 3부: 11:30am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 818-834-7000</p>	<p>3/8(수) 칼보리산교회 (담임목사 심상은, OC교협 회장) 10am(세미나), 7pm(말씀집회)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 714-722-4805</p>
<p>김양재 목사 서울대학교 용인대학 피아노 전공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박사 (목) 서울예총고등목교 강사 (목) 종신대학교 강사</p>	<p>우리들교회 담임목사 큐티선교회 이사장 KOSTA 국제이사</p>	<p>3/19(주일) 인랜드 ANC 온누리교회 1부: 8am, 2부: 11am 9806 Arrow Route, Rancho Cucamonga, CA 91730 / 909-945-9191</p>

미드웨스턴, 가을학기부터 예배학 석사학위 개설

실력과 경험 풍부한 교수진 신학적 토대와 실제적 과정 제공

“교회를 위하여”를 핵심 가치로 지역 교회를 위한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을 추구해 온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이 2023년 가을학기부터 예배학 석사과정(Master of Theological Studies-Worship Ministry)을 한국어로 개설한다.

미드웨스턴 한국부는 미주 신학계에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통할 만큼, 미국 신학교 가운데 최초로 한국어로 진행되는 성경사역학 철학박사과정(PhD in Ecclesiology)을 개설하였고, 이후 교육학 박사(Doctor of Education)과정을 개설하며 다변화하는 교회와 사역 현장에 최적화된 목회자와 선교사를 전문적이면서 실제적으로 양성해 왔다.

이번에 개설하는 예배학 석사과정은 기독교 문화 사역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요즘, 문화 사역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찬양, 예배 사역을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를 성경적이며 실제적인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해 기획된 과정이다. 신학적인 토대를 제공할 신학기초과목(30학점)과 현대적인 감각의 탁월한 음악적 실무를 갖출 수 있는 실제적인 찬양과 예배 전공과목(20학점)으로 총 50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찬양, 예배 전공과목 20학점은 ‘예배의 성경적 기초’ ‘예배와 회중 찬양 개론’ ‘예배사



©미드웨스턴신학대학원 예배학 석사과정 한국어 과정 개설

역 행정’ ‘예배 인도자 리더십’ ‘민족 음악(Ethnomusicology)의 이해’의 이론 과목(14학점)과 ‘예배팀 운영방법’ ‘찬양인도 테크닉’ ‘예배사역과 매체 활용’ 그리고 ‘음악 실습’ (6학점)으로 매우 실제적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본 과정의 전공과목은 예배학 사역의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이 지도할 예정으로, 어노팅팅 미니스트리 대표인 최요한 교수와 Isaiah 6tyOne의 대표인 조성민 교수, Worship In Christ의 대표인 이종현 교수, 교회 음악 전문가인 리빙 사운드의 이재호 실장, 민족 음악(Ethnomusicology) 전문가인 문지현 교수가 사역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예배학의 신학적 기초, 음악 이론 및 실습과정을 지도한다. 뿐

만 아니라, 어노팅팅 미니스트리와 Isaiah 6tyOne과의 MOU를 통해 이들 기관의 “찬양 인도자 학교” “예배 싱어 학교” “예배 건반 학교”, 그리고 “위십 리더 커뮤니티”와 “Isaiah 6tyOne 위십 학교(ISOW)”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저렴한 등록금으로 학업을 진행할 수 있다.

미드웨스턴 석사원에는 FIA 위십의 대표 이동선 전도와 예수전도단(YWAM) 찬양 인도자인 염민규 간사가 현재 재학 중이라 이들 단체와의 상호 협력도 모색 중이다. 이를 통해 미드웨스턴 한국부가 한국과 한인 교회의 예배학 분야에 새로운 메카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드웨스턴 아시아부 학장인 박성진 교수

는 “최근 문화사역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특별히 찬양과 예배 사역이 가지는 의미와 기능이 확대되는 시기에 올바른 예배 사역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배학 석사과정이 기존의 한국, 한인 교회 사역의 범위를 넘어 선교지에서도 음악을 통한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는 민족 음악의 이해가 바탕이 되는 교육이 되어 선교지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각 교회의 예배 사역자 뿐 아니라, 선교지나 선교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실제적인 배움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설의 변을 가름했다.

미드웨스턴은 남침례회(SBC) 산하 여섯 개의 신학대학원 가운데 하나로 복미 주류 신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와 미국 내 종합대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최고 인가기관인 HLC(Higher Learning Commission)에 정식 인가되어 있다. 현재 미드웨스턴 한국부는 740여 명으로 한국어로 제공하는 학위 과정 가운데 복미 최대 규모이며 복미의 한국어 학위과정 가운데 가장 실제적이면서도 탁월한 전문성이 검증된 교과과정 및 교수진으로 정평이 나왔다.

미드웨스턴 입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 웹사이트(www.mbts.edu/ks)를 통하거나 김윤주 팀장(이메일: ks@mbts.edu; Tel.: 816-414-3754)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굿네이버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AFAD)에 구호물품 전달

텐트·침낭 등 총 2억 원 상당 구호물품 튀르키예 당국에 전달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대한민국 외교부와 함께 튀르키예 재난 위기관리청(AFAD)에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18일, 하타이(Hatay) 주 사만닥(Samandağ) 소재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AFAD) 물류센터에서 열린 기증식에는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국제개발민간단체협의회(KCOC), 굿네이버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굿네이버스는 텐트(매트 포함) 280개, 침낭 1200개 등 총 2억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정부 조달 구호물품과 함께 튀르키예 정부에 전달했다. 전달된 구호물품은 한국 해외 긴급구호대 2진이 탑승한 군 수송기편에 도착했으며, 하타이 주 거주 지진 피해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AFAD) 관계자는 한국에서 온 구호물품이 지진 피해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말했고, 현장에

있던 튀르키예 군 관계자는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감사 메시지를 전했다.

굿네이버스 김선 국제사업본부장은 “한국에서 시작된 굿네이버스가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구호물품을 전달하게 된 만큼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굿네이버스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 전문적인 구호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발생 직후 국내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긴급구호 대응단을 파견하고, 100만 달러(한화 약 12억 5천만 원) 규모의 긴급구호를 실시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전화 문의: 844-357-7797

긴급구호 캠페인 홈페이지:

<https://kr.goodneighbors.us/turkiye-er>

튀르키예 긴급구호 후원금 보내실 곳:

Pay to Good Neighbors USA

주소: P.O. Box 6086 Orange, CA 92863

Venmo: Good Neighbors



©굿네이버스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교수진		초청 강사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3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한기총 “동성 결합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규탄”

자격 없는 자들에 억지로 자격 부여 대법원, 헌법과 판례 따라 바로잡길



한기총 제28대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정서영 목사. ©CHTV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에서 23일 ‘동성 결합 관계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정서영 대표회장이 취임하며 한기총이 정상화된 후 처음 발표된 것이다.

한기총은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부부’나 ‘사실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동성 결합’ 관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등을 참조했을 때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성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 없이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해 수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피부양자 제도의 존재 이유가 있다”며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은 차별대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기총은 “성적지향 등이 차별이라며 ‘동성 결합’ 관계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규탄한다”며 “동성 부부 혹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피부양자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심 법원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의 의미에 대해 “사실혼의 성립요건이 되는 ‘혼인’의사 또는 ‘혼인생활’에서의 ‘혼인’은 그 자체로서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석될 뿐이고, 이를 ‘동성 간의 결합’에까지 확장하여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기총은 “자격 없는 자에게 억지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정서적·경제적 생활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법의 경계를 허무는 행위는 사법부의 권한이 아닌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 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했고, 대법원도

혼인을 ‘1남 1녀 간의 정서적, 육체적 결합’이라고 판결했다”며 “동성 결합은 혼인의 관계가 될 수 없고, 법적으로 ‘배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도 재판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원고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가”라며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판결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리는 재판부가 ‘동성 부부’나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아 배우자가 될 수 없는 동성 결합 관계에 배우자 자격을 주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판결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는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단을 절대 신뢰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며 “대법원이 헌법에 따라, 판례에 따라 바로잡아 주기를 요청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피부양자 자격인 배우자에 대해 정확히 정의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대웅 기자

JMS,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JMS · 오대양 · 아가동산 이재록 등의 에피소드로 구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단사이비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8부작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 넷플릭스에서 3월 3일 공개되는 가운데,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다큐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내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JMS와 정명석은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에 MBC,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리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다큐 ‘나는 신이다’는 자신을 신이라 부른 네 명의 인물들과 이들이 일으킨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가 제작에 참여했으며, ‘PD수첩’ 등을 만든 조성현 PD가 연출을 맡았다.

시리즈는 ‘JMS, 신의 신부들’, ‘오대양, 32구의 변사체와 신(박순자)’,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김기순)’, ‘만민의 신이 된 남자(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등의 에피소드로 구성돼 있으며, 알려지지 않았던 진실과 최초 증언도 담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조성현 PD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00명이 넘는다”며 “서로 다른 메시아를 만났지만 놀라운 만큼 유사한 피해를 겪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조 PD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피해자들이 신으로 받들었던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인지, 우리 사회는 왜 여전히 같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남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대표 지위 최종 인정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소 기각 판결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이 23일 대법원에서 기각돼, 그의 대표 지위는 최종적으로 유지되게 됐다.

대법원은 원고 정OO 집사가 상고한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대법원은 기각 이유로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법 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는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혹은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기독교일보 DB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등의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시,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해당 소송 1심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교단 헌법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총회에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어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지위를 인정했다.

이대웅 기자

CDTV 미주기독교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213)487-5437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www.e-NCA.org



“애즈베리대 부흥, ‘예수 혁명’의 시작인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캘리포니아주 하와이의 하베스트교회(Harvest Church)를 담임하고 있는 그렉 로리(Harvest Church) 목사의 ‘애즈베리대학교는 다음 ‘예수 혁명’의 시작인가?’(Is Asbury University the beginning of the next ‘Jesus Revolution?’)라는 제목의 글을 24일(현지 시간) 소개했다.

이 글에서 로리 목사는 지난 2021년 많은 미국의 10대 소녀(57%)가 지속적으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이는 10대 소년 비율의 두 배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10대 소녀 3명 중 1명 꼴로 자살 시도를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젊은 세대에 대해 희망 이상의 것을 본다”며 최근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애즈베리대학교 부흥운동’에 대해 이야기 했다.

로리 목사는 “켄터키주 월모어에 있는 애즈베리대학교에서 일부 사람들이 ‘부흥의 불’이라고 표현하는 일이 일어났다”며 “곧 끝나지 않고 계속됐던 그곳에서의 예배다. 수백 명의 학생, 교수 및 교직원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며 회개해 왔다”고 했다.

이어 “사람들은 이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왔으며, 그들은 분명히 일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다”며 “최근 전해진 바에 따르면 부흥이 인근의 다른 캠퍼스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애즈베리대학교의 학생회장인 앨리슨 퍼파더(Alison Perfether)가 ‘터커 칼슨’(Tucker Carlson)과의 인터뷰에서 “기독교를 자신의 것으로, 젊고 자유로운 세대의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 일어나고 있는 젊은 영적 군사들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로리 목사는 “1970년 젊은이들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큰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며 “그것은 ‘예수 운동’이라고 불렸다. 우리 시대와 다르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은 미국의 역사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했다.

그는 “(당시) 거리에는 폭동이 있었고, 인종적 긴장이 있었으며, 핵전쟁의 공포가 감돌았고,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다. ‘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하나는 실제로 일어났다”며 “그러나 그것은 정치 혁명도 도덕 혁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타임지가 ‘예수 혁명’이라고 불렀던 것”이라고 했다.

로리 목사는 “그것은 국가와 세계를 변화



미국 애즈베리대학교(Asbury University)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Asbury University

시켰다”고 했다.

한편 그는 “미국의 마지막 위대한 영적 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새 영화가 2월 24일 전국 2,000개 이상의 극장에서 개봉한다”며 영화 ‘예수 혁명’(Jesus Revolution)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 영화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 즉 성실한 목회자 척 스미스(Chuck Smith)와 젊은 히피 전도사 로니 프리스비(Lonnie Frisbee)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며 “(영화에서 두 사람의 만남의) 결과는 폭발적이었다. 대부분 교회 배경이 없는 수천 명

의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신앙을 갖게 됐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이 영화에는 의미를 찾는 젊은 부부가 등장하기도 한다. 공허함 속에 있었던 그렉(Greg)과 캐시(Cathe)는 약물과 다른 불만족스러운 수단으로 공허함을 채우려 했다.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그들의 삶은 변화됐다”고 했다.

로리 목사는 “그 청년(그렉)이 바로 나왔다. 그리고 캐시는 제 아내”라며 “우리의 기도는 이 영화가 개봉되는 동안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예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찾았던 성취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가장 깊은 영적 각성에 관한 이 영화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일을 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한다”며 시편 85편 6절 “우리를 다시 살리시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라는 말씀을 인용했다.

로리 목사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영화의 개봉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다”며 “젊은이들에게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며 우리 나이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미주리주 교회, 주일예배 난입한 무장 갱단 기도로 저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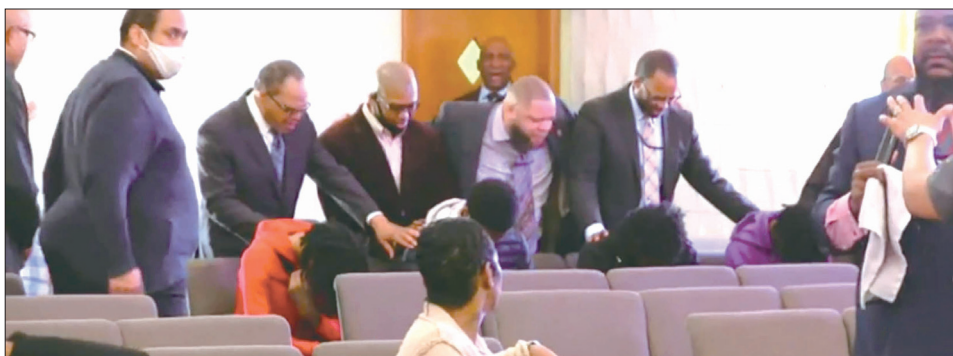
전직 경찰 출신 푸트렐 목사 “악을 바꾸신 성령 역사”

미국 미주리주의 한 교회에서 목사와 교인들이 강도 행각을 벌이기 위해 들어간 무장한 청년들에게 기도를 퍼부어 범행을 막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20일 오전, 퍼거슨에 위치한 올크리에이션 노스뷰 성결 가정교회(All Creation Northview Holiness Family Church)의 주일 예배 도중 발생했으며,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었다.

이 교회의 담임목사이자 전직 경찰 출신인 마르카엘로 푸트렐은 지역 매체인 KSDK와의 인터뷰에서 “주일 아침 예배 중에 일어난, 성령님의 기적적인 갱단 체포였다”고 전했다.

푸트렐 목사는 “두 개의 가방을 들고 교회에 들어온 한 남성이 교회 어린이 예배 담당자에게 질문을 시작한 뒤 시련이 시작되었다”며 “즉시 목뒤의 머리카락이 쭈뼛 섰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직감했다”고 밝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스크를 쓴 4명의 청년이 교회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전직 경찰인 나는 즉시 그들의 허리 띠를 바로 알아차렸다. ‘거기 뭔가 있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교인 중 한 명은 갱단의 일원이 총을 떨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하



2023년 2월 12일에 교회에 난입한 무장 강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올크리에이션 노스뷰 성결 가정교회의 교인들.(사진 맨 오른쪽)마르카엘로 푸트렐 담임목사가 기도를 끝내고 서 있다. ©노스뷰교회 페이스북 캡처

기도 했다.

푸트렐은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침착하게 예배를 이어갔고, 나중에 경찰에 알렸다. 교회 직원들에게는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증거를 위해 남자들의 얼굴을 기록하도록 지시했다.

녹화된 영상에서 그는 계속 예배와 기도를 이어갔고, 54분쯤 지나자 예배당 뒤편에 앉아 있는 청년들에게 다가갔다. 푸트렐은 그들의 이름과 주일 예배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누가 너희를 여기로 보냈니? 방금 교회를 보고 들어오기로 결정했어? 말해보라”고 한 뒤, 청년들을 교회에 오게 하신 하

나님을 찬양하라고 교인들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곳에 보내신 것을 찬양한다. 악마가 꾀한 것은 악이며, 마르카엘로 안토니오 푸트렐을 망쳐 놓는 것”이라고 외쳤다.

목사는 또 청년들이 처음에는 불순한 의도로 교회에 온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원수의 음모”를 바꾸고 계심을 알고 있다고 선포했다.

그는 “나를 상대로 장난을 치지 말라. 나는 여전히 기쁨부음을 받은 경찰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면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음모를 바꾸려고 하신다.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이 하

실 일을 외쳐 보라”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푸트렐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도 되는지 물었고, 그들은 순순히 동의했다. 그 순간 온 교인들은 청년들에게 집중한 뒤, 몇 분 동안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기도를 마친 후 그는 교인들에게 청년들이 천국에 들어갔음을 선포했다.

푸트렐은 “그렇게 나쁜 형제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어떤 이유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하신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이 땅 위를 걸을 때, 성령의 잔디 위를 걸었던 것”이라며 “여러분은 올크리에이션 주차장에 발을 디뎠다.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만났고, 당신 모두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방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무단으로 침입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며 “원수가 홍수처럼 물러올 때에 여호와와 영이 기둥을 높이신다. 결코 홍수가 그 기둥을 넘어설 수 없다”고 선포했다.

퍼거슨 경찰국에 따르면, 예배 직후 청년 4명은 창문이 썩어진 차를 타고 교회를 떠났으며,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강혜진 기자

美 귀어 가수, 벨엘교회서 세례받아... “예수님이 내 구주”

공개적인 귀어 배우이자 디즈니의 ‘하이 스쿨 뮤지컬: 더 뮤지컬: 더 시리즈’(High School Musical: The Musical: The Series) 가수인 조슈아 바셋(Joshua Basett)이 미국의 벨엘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벨엘교회는 미국 캘리포니아 레딩에 위치한 은사주의 교회로,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지난 13일 바셋이 벨엘교회에서 전한 간증 영상이 트위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영상에서 바셋은 “나는 기독교인으로 성장했지만, 다른 길로 달렸다. 진리를 찾고자 가능한 한 멀리 가고자 했다. 결국 그 끝은 중독, 우울, 자살 사고, 섭식장애 등이었다. 어떤 교사도 예수님처럼 내게 평안을 주지 못했다. 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선포하기 위해 여기에서 있는 것”이라고 했다.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전달한 그는 이에 반대하는 이들에게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2021년



조슈아 바셋(Joshua Basett)이 벨엘교회에서 간증을 나누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성별인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

교인 수가 11,000명에 해당하는 대형 교회인 벨엘교회는 공식 웹사이트에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평생의 언약이며, 성적 행위는 오직 결혼 안에서만이 복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바셋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교회에 방문했는데, 이곳에서 세례를 받게 됐다. 이 교회의 일부 정책이나 신념에 대해선

잘 몰랐고, 모든 것을 다시 지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내 마음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지난 1월 5일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증오를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그분을 향해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한편 벨엘교회는 일부 은사주의적 관행으로 종종 비판을 받아 왔다. 그 중에는 ‘영광의 구름’이라 불리는 금가루가 공예배 도중 천장에서 떨어졌다는 주장이 있다.

빌 존슨(Bill Johnson) 담임목사는 이에 대해 “영광의 구름이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초자연적인 표시”라고 했다.

또 2018년 뉴에이지에 관심있는 이들을 전도하기 위한 아웃리치 도구로 ‘기독교 타로 카드’를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회는 그러나 “카드를 홍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9년에는 올리브라는 2세 소녀의 사망 후 부활을 위해 기도하며 주목을 끌기도 했다.

벨엘뮤직 워십스쿨(Bethel Music Worship School) 공동 창립자이자 예배 인도자인 브라이언과 젠 존슨(Brian and Jenn Johnson)은 이달 초 CP와의 인터뷰에서 “죽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보다 신앙을 실천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는 편이 낫다”고 했다.

브라이언 존슨은 “진실은, 미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미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 맞다. 이는 사실이다. 그러나 모두 과격하고 있고 모두 여정 중”이라고 했다.

젠 존슨은 “(그것은) 우리 등에서 흘러 나오는 물과 같다고 생각한다. 결국 벨엘교회 스태프들은 매우 좋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문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다. 우리는 연약하고, 세련된 것들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고 말하고 노래하고 또 위험을 무릅쓰는데 있어서 정직하고 약한 것은 괜찮다. 모든 면에서 완벽해지고 싶다면 그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창립 50주년

나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영원한 기쁨, 희년

기념 주일 예배

2023년 3월 5일 (주일)
1부 8:30AM | 2부 11:00AM

하나님의 은혜로 희년을 맞은 나성영락교회가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기념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설교 | 1부 박희민 목사 2부 림형천 목사 인도 | 박은성 담임목사

기념 특별 집회

3월 4,11,18,25일 (토) 6:00AM

창립 50주년을 맞아 3월 한달간 매주 특별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 3월 4일 (토) 권혁빈 목사 (씨드교회)
- 3월 11일 (토)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 3월 18일 (토) 국윤권 목사 (충현선교교회)
- 3월 25일 (토) 박은성 담임목사

기념 은퇴식 및 임직식

3월 5일 (주일) 3:00PM

창립 50주년을 맞아 은퇴식 및 임직식을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설교 | 서정운 목사 (장신대 명예총장) 권면 | 고태형 목사 (선한목자교회)
축사 | 김지훈 목사 (동양선교교회)

- 장로 은퇴: 김동호 강용철
- 집사 은퇴: 김희주 송익준 최은기 이용호 임학순
김도훈 이형일 정 용
- 권사 은퇴: 김경현 박인숙 임명신 김명옥 이근희
윤선옥 오경인 이광선 이영우 최혜진
황진순 정정숙 송진호
- 장로 임직: 장진혁 김인자
- 집사 임직: 황태은 김동진 장영환 송상협 서먼켄
백장미 송난희 조지운 황미리 김종식
브룩스마커스 이재강
- 권사 임직: 이경아 김태미 정은실 한연희 김 현
김미예 원정희 박미영 서먼미경
브룩스영 한은희



YNC 나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77-1400 / Fax. 323-227-0718



담임목사 박은성
Rev. Dr. Eunsung Park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차세대) 오전 9:15 새벽예배 (월-토) 오전 6시
3부예배(차세대) 오전 11:30 (토-일) - 헌정성경예배
대학원대학/EM 오후 2:00 수요일(보)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유하여,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고지)
T.(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 2부 찬양예배 오전 9:00 아역(유아/어린이) 주일 오후 2:30
주일 3부 영인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오전 9: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유아부.유서부.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회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기에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 새음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562)674-3016, cell.(562)417-1800
www.newhopechurch.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립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연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평이 있으며 신과 진노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과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618-0614
lords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금요일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사랑하시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부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치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아름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목요집회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EM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00(금)
중보기도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내)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wgm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wkum.com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명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애즈베리 부흥’ 을 보는 시선들... 완벽해야 부흥인가?



마크 트레이퍼 박사 © 랭커스터바이블칼리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역사신학자 로랜스 터바이블칼리지(Lancaster Bible College)의 교수인 마크 트레이퍼(Mark Draper) 박사가 ‘부흥’(revival)과 관련해 쓴 글을 27일 소개했다.

트레이퍼 박사는 이 글에서 “교회 역사가로서 최근 애즈베리대학교에서 끝난 부흥회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웠다”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어떤 사람들은 부흥을 조심스럽게 격려하면서 이것이 열매를 맺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한다. 명백한 반인종주의적 메시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가치를 격하하거나, ‘감정주의’와 설교 부족에 대한 전형적인 비난도 있었다고 한다.

트레이퍼 박사는 “만약 우리가 완벽한 부흥이나 우리의 특정 기준에 맞는 완벽한 부흥을 찾는다면, 부흥의 역사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신다”고 했다.

트레이퍼 박사에 따르면 18세기 초 첫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동안, 복음주의 운동은 순회 설교자 조지 윌필드(George Whitefield)에 의해 필라델피아 등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우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을 통해 그런 윌필드의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 때문에 윌필드가 많은 교회에서 설교하지 못 하고 거리로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트레이퍼 박사는 전했다.

트레이퍼 박사는 “오늘날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기준으로 첫 번째 대각성 운동을 판단한다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프리카 노예를 소유한 것을 결코 회개하지 않았고, 윌필드는 조지아에 고아원을 짓기 위해 노예를 사용한 것을 결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그렇게 비판할 경우, 윌필드가 필라델피아의 노예 시장 중 한 구역에서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기독교를 대거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이 부흥기 때였음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에드워드는 인종에 기반한 노예제의 죄를 볼 수 없었지만, 조나단 에드워즈 주니어 등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아 에드워즈와 함께 공부한 뉴잉글랜드의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노예제에 반대했다”고 했다.

또한 트레이퍼 박사에 따르면 19세기 전반에 걸쳐 두 번째 대각성 운동으로 알려진 일련의 부흥 운동이 있었을 때도 “19세기 부흥운동은 금주 운동, 주일학교 운동, 여성의 권리 등을 탄생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는 “경제 침체 후 월스트리트에서 1857~58년, 사업가들의 부흥으로 알려진 부흥이 일어났다. 이러한 부흥은 미국의 부분적 긴장과 함께 열광적으로 나타났다”며 “기독교인들은 부흥이 나라를 치유하기를 바랐고, 노예 제도가 너무 분열적이라는 이유로 예배 중에 언급되는 것을 거부했다”고 했다.

트레이퍼 박사는 “물론 이러한 부흥이 미국을 치유하지는 못했지만, 성결운동이 주류 복음주의에 영향을 주고 사회 개혁의 진척과 교단들의 협력이 일어난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동안이었다”며 “남북전쟁 동안 부흥은 연합군과 남부군 진영 모두에서 정기적으로 일어났다”고 했다.

트레이퍼 박사는 “이번 (애즈베리대학교 등에서의) 부흥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기 전에, 그것이 개인과 국가의 죄를 회개하는 데 이르도록 신중히 기도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와 성경이 우리의 길잡이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한 세대 동안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알지 못할 것”이라며 “하나님의 방법은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美 캠퍼스에서의 부흥, 실제 전도로 이어지다

캠퍼스 예배에서 은혜를 경험한 미국 오하이오주 시더빌대학교(Cedarville University)의 학생들 수십 명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역의 캠퍼스들을 방문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4일(화요일) 저녁 예배와 기도회에 이어 학생들은 시더빌대의 토마스 화이트(Thomas White) 총장의 권유를 받고 전도를 위해 여러 대학 캠퍼스를 방문했다.

이 학교의 학생 가브리엘 체리(Gabriel Cherry)는 최근 이스트랜싱(East Lansing)에 있는 미시간주대학(Michigan State University, 이하 MSU)으로의 전도 여행을 조직하는 것을 도왔다고 한다.

체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이달 초 학생 3명이 사망한 총격 사건의 여파로 MSU 캠퍼스가 슬픔에 잠겨 있기 때문에 한 친구가 그곳에 가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체리는 또 “다음 14시간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15인승 밴, 밤을 지낼 장소, MSU 캠퍼스의 연락처, 전도 여행을 떠날 의향이 있는 14명의 사람들을 주셨다”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분명했다”고 했다.

체리는 CP에 “우리는 (MSU) 캠퍼스에서 우리에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는 분을 만났고,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원한 소망으로 격려할 수 있었다”고 했다.

체리는 그 전도 여행에 대해 “굉장했다”(incredible)면서 “그 자리에서 구원에 대한 결단이 바로 있지는 않았지만, 씨앗이 심겼으며 우리가 단지 학생과 지역 사회를 사랑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다



시더빌대학교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시더빌대학 페이스북

는 것에 많은 감사가 있었다”고 전했다. 체리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으며 학생들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체리는 “MSU에서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전도 여행은 우리가 캠퍼스에 빛을 비출 수 있었던 한 사례였지만 모든 것을 고칠 수는 없었다”며 “학생들을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있으며, 추가로 팀들이 우리가 시작한 일을 계속하기 위해 MSU로 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캠퍼스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이번 전도 여행을 통해 만들어진 관계를 심화하며 성령님께서 다음에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지 보게 되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시더빌대학교의 또 다른 학생인 크리스티아나 갈킨(Christiana G. Galkin)은 친구들과 함께 콜럼버스에 있는 오하이오주대학(Ohio State University, 이하 OSU)에 갔고 록 시티교회(Rock City Church)와 협력하여 소그룹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한다.

이미경 기자

'동성 커플 축복 결의' 英 성공회, 파국 맞나

보수 지도자들, 전통적 조직과 캔터베리 대주교의 리더십 부정

영국성공회가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 기도를 허용한 데 대한 교단 내 보수 지도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남반구성공회교회협회(Global South Fellowship of Anglican Churches, GSFA)는 최근 전통적 성공회 조직을 뒤집고 영국성공회 저스틴 웰비(Justin Welby) 캔터베리 대주교를 모든 글로벌 리더십에서 축출하는 내용이 담긴 7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GSFA 지도자들은 각 관구에 "영국성공회가 사도들로부터 물려받은 역사적 신앙에서 벗어났고, 신실하게 남아 있는 관구와의 친교도 깨졌으며, 공동체를 이끌 자격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인식해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이 계획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들은 더 이상 현재의 캔터베리 대주교를 '등급 중 우선'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고, 캔터베리 대주교는 주교회나 램버스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대신 이들은 공동체 삶의 형태와 본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다른 신실한 성공회 신자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ACC(Anglican Consultative Council)가 최후의 도구로 남았으나, GSFA 지도부가 "지난 주 가나에서 열린 ACC-18 회의가 제안한 방식으로는 동행할 수 없다"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 ©flicker

고 단호히 선언하며 이 또한 기각됐다.

GSFA는 수정주의 관구와 10년 동안 계속된 또 다른 대화에도 관심이 없다.

이에 대해 CT는 "GSFA가 영국성공회를 권력에서 제거한 후, 남은 정통 주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인식 하에 주도권을 잡았다"며 "그들은 성공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카이로 언약에서 새로운 방식의 관계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새로운 반응이 아니다. 지난 2019년 GSFA에 의해 함의된 카이로 언약은 놀랄만큼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수 년간 진행돼 왔다"며 "이 성명에서 영국인들에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정통 교구와 수정주의 관구의 성공회 네트워크에 대해 대주교와 감독들의 감독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벨리베를 OC제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말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연구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3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1, (818)303-8887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플러시(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메(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지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s.com

신태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회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9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7:45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PCM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국학교(토요일) 오전 9:0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 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 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애민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부 오전 9:30, 11:30
한어(한글)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D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어청년부 오전 9:30, 11: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청년기도회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혁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령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부분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등한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필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근본은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리라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 598-9130 breadhoon@hotmail.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러-우 전쟁 1주년... 현지 자선단체 "계속 기도해 달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물품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대성당. ©ACN 제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이해 최전선에서 구호 활동을 펼쳐온 한 자선단체가 지속적인 기도와 지원을 호소했다.

기독교 자선단체인 '크리스천 채리티스튜어디십'(Christian Charity Stewardship)의 우크라이나 긴급대응자금은 지난해 36만5000 파운드를 모금해 자선단체와 교회들에 전달함으로써, 영국에 있는 난민들을 포함한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실질적·영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이 단체는 "약 46,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리아와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삶의 위기에 내몰린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기금을 통해 우크라이나 수미 지역에서 분쟁으로 파괴된 교회를 다시 개척할 새로운 지도자를 양성하는 성경대학을 포함해, 현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호프 리베딘(Hope Lebedyn) 사역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위기 발생 후 우크라이나에 최초로 등록된 국제 NGO인 미디어(Medair)에도 사용한다.

크리스천채리티스튜어디십은 분쟁이 시작된 이후 33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의료, 쉼터 및 필수 물품을 제공했다.

2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2월 24일부터 2023년 2월 15일까지 약 1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최소 21,293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8,006명, 부상자는 13,28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일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지역 등을

포함할 때 실제 사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가 병원, 학교 등 민간 시설에도 공습을 강행하며 많은 민간인 사망자들이 나왔다. 일부는 지뢰와 폭발물 잔재로 팔다리를 잃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 기간 어린이 사망자 수는 최소 487명, 부상자 수는 954명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전쟁으로 민간인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사망한 민간인들은 집에 있거나 음식을 구하러 가는 등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했다.

이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우 전쟁 1주년을 앞두고 러시아의 200여 개인과 독립 기관을 상대로 추가 제재를 예고하며 러시아를 압박했다.

그는 폴란드 왕궁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우린 나토의 모든 영토를 수호할 것이고, 러시아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경연설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은 서방이며, 이를 억제하려 한 것은 우리였다. 국민 대다수가 돈바스 방어를 위한 우리의 작전을 지지한다. 우리를 패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이 새 유형의 핵무기를 개발 중이고, 일부 미국 인사들이 전면적 핵무기 시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미국이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핵무기 위협 발언도 했다.

강혜진 기자

성교부흥을 회복하라 #292

“이스라엘 회복신학과 운동을 바라보며”

필자는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일까지 이스라엘을 다녀왔다. '성경 빅 픽처를 보라'의 저자인 김인식 목사의 이스라엘 세미나를 참가하고 이어 성지순례를 하였다. 세계 22개국에서 54명의 한인 선교사가 참여하였다. 무엇보다도 선교사들의 풍성한 교제를 통한 영적 동행이 이루어짐에 기쁨이 크다. 20대의 청년 선교사부터 60대의 장년 선교사들까지 각 세대가 고루 분포된 선교사들의 모임이었기에 그 의미도 매우 컸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과 새 땅에 참여해야 할 때는 바로 열방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택하셨던 민족인 이스라엘의 믿는 그리스도인(메시아니 주)들과 연합해야만 되는 것임을 깨달았다.

또한 필자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신 말씀의 음성을 다시 듣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이스라엘 수도가 텔아비브가 아닌 예루살렘이라고 선포된 이후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이 들었다. 성지 곳곳에서 발굴작업과 개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히브리대학에서 이스라엘 역사로 Ph. D.를 받은 오스오 교수와 최교수 교수의 강의를 통해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 분명 이스라엘 영토인 것 같은 예루살렘은 정녕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들과 정치들의 혼잡지역이다. 성전 터와 황금 돔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은 유대교의 구역, 이슬람의 구역 및 가톨릭 구역, 정교회 구역 그리고 기독교 구역 등이 있어 항상 그 갈등의 소지가 존재하고 있다.

세미나는 성경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해 선포하고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마지막 때에 대한 신학적 진단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과 특히 유대인에 대해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 2천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 대상이 “교회”로 대체된 것에 대한 바로잡음을 말하고자 함이 세미나의 목적이었다. 이 이론을 “이스라엘 회복신학”으로 말했다. 지난 30여 년간 신학을 하고 묵화하며 교회를 통한 구원과 교회에 주신 예언의 말씀만을 의심 없이 가르쳤던 필자와 많은 선교사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소화하기 힘든 부분의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세미나는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 이유는 필자를 포함한 많은 선교사들이 마지막 강령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하고,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의 마음과 예언의 말씀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한 새 사람(One New Man)의 비전에 믿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가 함께 이루어야 할 마지막 때의 구원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이제껏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교회만을 통한 구원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 필자만 보아도 지난 30년을 세계 선교와 열방 사랑을 선포하며 많은 나라들에 선교를 다녀왔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특유의 사랑은 부족했다. 오히려 그 안에 사는 팔레스타인이나 아랍에 대한 동정의 마음이 지배적이었다. 물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동일한 사랑이지만 마지막 때에 구원과 그 이후 새 하늘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끌고 오르셨던 골고다 산까지의 긴 오르막길인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를 오르면서도 생각했다. 어느 지역은 유대교 지역이라 무슬림들은 출입을 못 한다. 어느 구간은 이슬람 지역이라 유대인이나, 정교회, 기독교인은 출입할 수 없다. 우리는 다만 그들의 종교를 초월한 자격인 관객의 자격(?)으로 그 구간들을 다 들어갈 수 있었다. 재산 소유권마저도 이스라엘 영토 안임에도 각기 소유하고 있는 정말 복잡한 도성 예루살렘이다. 이 예루살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꿈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이다.

기고

형제여, 73년 전 사랑의 빛은...

생명은 목숨이 있는 한 살려야 한다. 왜냐하면 구원은 마지막 순간에도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수님 옆에 달린 오른 쪽 강도도 그랬다. 필자 역시 병원 원목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았다. 젊은 시절 교회 종소리가 싫어서 기독교를 거부했던 어느 환자 분이 수십 년 후에 암환자가 되어 중환자실에서 고통 받고 있을 때, 필자가 전한 위로의 말과 성경의 복음을 듣고는 회개한 일이 있었다. 큰 수술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본인들의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 일인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다.



박상원 목사 기드온동족선교

그러려면 누군가는 옆에서 끝까지 위로의 메시지와 영생의 소망을 주어야 한다. 15년 동안 어려운 북한동족선교를 감당하면서 때로는 어려울 때가 많았다. 핵실험, 전쟁위협에도 끈기있게 우리의 북한주민과 동족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비밀리에 도와주는 심부름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중국의 선교탄압과 추방, UN의 대북 제재 등의 장기화로 동족의 생명을 살리는 선교 구제의 일이 이렇게 멈추는 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한 생명이라도 살리시려는 주님의 계획과 마음은 멈추지 않았다. 국경이 폐쇄되

어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코로나 기간 중에만 지하교회에서 4번이나 편지를 전해왔고, 우리가 보낸 지원을 잘 받았다고 인사하는 주민의 동영상까지 찍어서 숨은 일꾼들이 보내왔다. 참으로 이들의 수고와 협력에 사막에 길을 내시고, 황무지에서도 샘물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구원의 마음을 보는 듯하다. 그래서 모두가 포기하고 안 된다고 체념할 순간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믿음으로 이 생명 구하기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월 6일 터키에서 발생한 진도 7.8의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많은 인명들이 무너진 건물더미에 갇혀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거운 요즘이다. 최근에 튀르키예라고도 하는 터키는 불과 73년 전, 6.25 전쟁으로 나라까지 없어질 뻔했던 우리나라를 외면하지 않고 크게 도와준 형제의 나

라다. 며칠 전 감동스런 그림을 봤다. 2개의 대조되는 장면을 그린 명민호 일러스트 작가의 작품인데, 73년 전 터키 군인이 우리나라 어린이를, 현재는 한국의 구조대원이 터키 어린이에게 물을 건네는 모습이다.

구조를 위해 한국 구조대원이 떠났다고 한다. 도착하자마자 구조활동을 펼친 첫날에 5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한다. 이번 한국의 정부의 발 빠른 구조로 터키사람들이 “73년 전 진 빛은 사라졌다”며 감격해 했다. 필자가 알고 있는 몇몇 선교사들도 지난 주에 터키 구조활동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현지로 떠났다. 후방의 우리들도 마음과 정성은 생명 구하기 현장으로 가야 한다.

필자가 섬기는 선교회에서도 터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나서기로 했다. 왜냐하면, “나그네와 어려운 이웃(형제요 동족인)을 돌아보아 준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과 동일시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 영원한 사랑의 빛을 갖는 방법을 주님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마25: 31)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례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기독교대학의 최우수(D.A.), 상담학부, 선교학부,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100% 한국어
-1-20 발급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연락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어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면담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www.openstewardship.com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세상이 열리기를 *smile*

행복한 상상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한인사회를 비롯해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운영중인 현 프로그램 활성화와 확장을 **Open Stewardship Foundation** 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오픈청지기재단 수혜단체 공지

2022 OPEN STEWARDSHIP PROGRAM RECIPIENTS LIST

- Accompany Worldwide
- All Nations Church Growing-Up Reading Clinic
- American Wheat (Milal) Mission in Southern California, Inc.
- Asian American Job Training Center
- Being Built Together (BBT)
- Bridgeway Family Life Center
- Cal G.I.V.E. Foundation
- Christian Counseling Services
- Circle of Friends in Love
- City of Refuge Mission Center
- Communities Actively Living Independent & Free (CALIF)
- Divorce Recovery Ministry, Inc.
- Edemonia Medical Service
- Edenhurst Community Center
- EIS Family A38
- Faith and Community Empowerment (FACE)
- Family Saver Center
- Fristers
- G.I.F.T (Global, Individual, Family, Transformation) for Community
- Good Hands Foundation
- Good Neighbors USA
- Grace Community Service
- Hanmi Family Counseling Center
- Happy Village- The Korea Daily
- Home on the Green Pastures
- Hope Sight Mission Association
- Hyosarangus Mission
- IATIA Cherish Mission
- Intellichoice
- Jesus Love World Mission
- KOA Dance Federation
- Koinonia Mission
- Korean American Coalition
- Korean American Community Services, Inc.
- Korean American Dementia Center

-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Inc. (KFAM)
-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Inc. (KAFLA)
- Korean American Seniors Association of OC
-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
- Korean American Women's Association (KAWA)
- Korean Resource Center
- Koreatown Senior and Community Center
- Koreatown Youth and Community Center, Inc. (KYCC)
- L.A. Mom and Dad Mission
- Love In Music
- LNC (Love & Care) Foundation
- Mental Health Family Mission
- Micah Healing Ministry
- Mother Teresa Services
- NKRSA US
- North California Life Line
- Pacific American Volunteer Association (PAVA World)
- Shalom Center for T.R.E.E. of Life
- Shalom Disability Ministries
- Siloam Healing Mission Center
- Somang Society
- South Bay Ko-Am Senior Center, Inc.
- Street Company
- Texas Milal Mission
- The Angeles Dream Foundation
- The Branch of Almond Tree
- The 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of S.F Valley
- The Lock Ministry
- The Way Biblical Counseling Ministry
- The Well Mission
- Watered Garden Mission for the Physically Challenged
- Vision Care Service West
- World Mission University
- Youstar Foundation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온 세상에 전하는 -



강준민 칼럼

무릎 꿇은 나무에게 배우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에베레스트 정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산소가 희박합니다. 정상은 춥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이유는 잠시 머물다 내려오기 위함입니다. 정상에 도전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상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싶은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2001년에 시각장애인 가운데 최초로 에베레스트산(8550m) 등정에 성공한 미국인이 있습니다. 에렉 웨이헨메이 어입니다. 그는 중학교 교사와 레슬링코치를 지냈습니다. 1살 때 희귀한 눈병으로 시력을 잃은 그는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등산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33살에 시각장애인으로 사상 처음, 세계 7대륙 최고봉에 모두 올랐습니다.

정상을 정복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저는 정상을 정복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생각

보다 겸손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운이 좋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혼자서 정상을 정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정상을 정복한 사람은 겸손해야 하며,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6좌를 모두 오른 산악인 엄홍길은 “산은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정상을 잠시 빌리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산이 나를 받아 주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산이 나를 거부하면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 산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나무를 포함해 모든 식물은 자세를 낮춥니다. 정상의 바람은 거셉니다. 그런 까닭에 언제나 자세를 낮추고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위로 성장하고 싶은 욕구를 자제하며 깊이 뿌리를 아래로 내립니다. 그래야 정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키산맥 3천 미터 높이에 수목 한계선인 지대가 있습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 때문에 곧게 자라지 못합니다. 한결같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한 채 지내야 합니다. 이 나무들은 열악한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 무서운 인내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 설수록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릎 꿇은 나무처럼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신 인물들은 한결같이 겸손했습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알았습니다. 요셉은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창 41:15)고 말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창 41:16)라고 대답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총리의 자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그의 승리의 비밀은 겸손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줄 때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도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라”(단 2:27-28상).

그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뒷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 6:10).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눅 22:41). 예수님은 겸손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 주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 위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무릎 꿇음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섬기는 것은 지혜입니다. 낮춤이 높임입니다. 낮출 줄 알아야 더 높은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정상에서 겸손히 만민을 섬길 수 있습니다(창 50:20).

뿌리 깊은 나무는 맑은 태양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어둠까지 사랑합니다. 뿌리는 빛 가운데 자라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자랍니다. 뿌리는 어둠 가운데 점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는 나무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무릎 꿇은 나무에게서 명품 바이올린이 탄생합니다.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무릎 꿇은 나무가 아름다운 선율을 발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낮추어 무릎 꿇은 나무가 되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김한요 칼럼

평균 실종 시대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삼 형제가 같이 자라면서 제일 많이 싸울 때는 평균을 찾을 수 없을 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피자를 먹을 때 칠없는 삼형제는 자주 싸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피자 조각의 크기가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덟 조각의 피자를 두 조각씩

먹은 후, 남은 두 조각을 삼 형제가 나누기 위해 싸우는데, 공평하게 나누어질 리 없습니다. 왜 피자는 똑같은 크기로 자르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나 요즘은 피자 크기가 달라서 더 좋다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사이즈를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원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 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공평한 것은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평균 실종 시대라고 합니다. 혹은 N극화 현상이 팽배해진 시대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평균 기준을 잡는 것이 무의미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의 성향, 기호, 의견들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성향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 일어나는 문화적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메뉴가 선택의 폭이 좁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각자의 최선을 뽑아내는 방법이 다르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는 그 수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순간, 뜨거운 순간, 침묵의 순간 예배 전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꼭 찬 예배를 드립니다.

베델의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그리고 4부 청년 예배가 있습니다. 어느 예배도 똑같지 않습니다. 분위기도 다릅니다. 콰이어와 풀 오케스트라가 있는 1부 예배, 악기와 찬양팀이 어우러진 2부 예배, 젊은이들, 영어권 문화에 익숙한 세대를 위해 맘껏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3부 예배와 날 것의 싱싱함이 튀는 4부 예배

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를 기획하면서 저의 바람은 본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출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편하게 오십시오. 클래식한 예배와 자유로운 예배의 분위기가 따라 어울리는 옷을 입고 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평균치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예배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중 성령이 임하시면 맘껏 표현하십시오. 기도로 요청하십시오.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하십시오. 개인이 묻힌 평균 내기가 아니라, 나의 고유한 상황에서 예배를 받아 주시고, 위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해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르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기독교샵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www.Kidokshop.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ello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참깨,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진유철 칼럼

원함에서 행함으로 가려면 싸워야 한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경에서 무서운 저주의 상징처럼 등장하는 나병은 국부적인 고통을 못 느끼는 병입니다. 뜨거운 불에 손가락이 타는데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은 저주이지 축복이 아닙니다. 육체가 살아있으면 병과 싸우며 아파하지만, 죽으면 몸에서 병이 다 나와 아픔도 고통도 없습니다. 이처럼 삶에서 갈등하며 아파하는 것은 살아 있다는 증거이며, 살아있음을 감사할 수 있게 해주는 역설이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고민 없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영이 살아나면 죄에 대해 갈등하게 되고 아파하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갈등은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마음의 원함은 거룩함인데 육체의 소욕은 그렇지 않은 자신을 향해 끈고한 자라고 아파하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느냐고 외칩니다. 그런 깊은 갈등의 과정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갈등하는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확실해지는데, 이것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벧전1:7)

남미를 점령한 스페인의 피사로는 168명의 군인과 선원들로 최소 6십만에서 6백만 명쯤 되는 잉카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학자들의 논리는 '병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집 안에서 소, 말, 돼지, 양, 염소, 닭, 개와 오리 등 20여 종의 동물들과 함께 생활할 때였습니다. 동물들은 병균을 사람에게 옮기는 숙주 아닙니까? 이런 동물들과 수 천 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항체가 생겼지만, 당시 남미 원주민들은 항체가 거의 없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유럽에서 온 병균에 감염되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옛날 한국이 가난하여 흙바닥에서 구르듯 놀고 큰 사랑 하나를 한 반의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빨아먹던 시절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요즘 유행하는 아토피나 A형 간염 같은 것이 거의 없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신앙은 모든 것을 입맛대로 맞추어주는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예배에서는 성경을 화면으로 다 띄어주고, 찬양은 찬양팀이 다 불러주고, 봉사로 편하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힘든 선교나 전도는 아예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시험과 갈등을 두려워 피하는 만큼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순교는 커녕 조그만 핍박이나 어려움조차도 이겨내기가 버겁습니다. 원함은 크고 확실하지만 행함이 없어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간증도, 열매도 없는 신앙생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답 아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리를 믿거나 세뇌된 믿음에서 나오는 원함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원함에서 행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과 세상과 원수마귀와 싸워 이겨야 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

박동식 칼럼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야 할 아이들



박 동 식 교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공부라 들어서면 관계는 멀어진다. 자식의 성적 앞에 해탈의 내공을 가진 부모는 많지 않으며, 자신의 성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모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식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오래 전 SBS 스페셜, <부모 vs 학부모 2부>를 본 적이 있었다. 학생 하나가 엄마에게 한 말이 아직 내 마음에 남아 있다. '엄마는 사채업자보다 더한 것 같아. 사채업자는 하루에 한 번 독촉을 하지만 엄마는 더 자주해. 빌려준 원금과 이자 받고 싶어 안달난 사람 같아.' 설마 부모가 사채업자이겠는가? 그런데 자식이 그렇게 느낀다면 부모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무엇이 부모를 자식에게 사채업자로 만들었는가? 경쟁의식 때문 아닌가.

여행가 한비야가 그랬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만을 비교하자. 나아감이란 내가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보다 앞서 나가는 데 있는 거니까. 모르는 건 물어보면 되고 실수하면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야." 옆에 있는 이와 경쟁하지 말고 자신과 경쟁해

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은 친구와 비인간적 경쟁을 하게 한다. 제도가 경쟁을 부추긴다.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는 하는데, 혹 우리 아이가 뒤쳐지지 않을까 염려하며 엄청난 돈을 들여 사교육 시키고 선행학습 시키고,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교육제도가 바뀔 수 있을까? 한국 교육제도를 바꾸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대통령감을 넘어서 노벨평화상도 받을 수 있다고까지 하지 않은가.

언젠가 게임을 열심히 하며 놀고 있는 아이들이 눈에 보였다. 숙제를 다 했다고 하기에 너무 일찍이다 싶어, 오늘 숙제한 것 가지고 와 보라 하니, 순간 생각이 났는지, 한 장을 털었다. 부모 입장이 아닌 아이 입장에서 아이를 대해야 한다는 TV 장면이 떠오르지만, 내 얼굴은 벌써 굳어있고 입에서는 잔소리가 나왔다. 보고 들은 것이 몸으로 소화되며 체화되기에는 아직 멀었으나 보다. 딸이 5학년이었을 때, 학교에서 성교육에 관한 비디오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다. 자신의 몸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나름 충격이었던 것 같다. 나도 자라면서 사람의 몸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었을 때 뭐랄까, 약간의 배신감과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한 당혹감도 있었던 것 같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나이 때마다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을 빠짐 없이 또한 두려움 없이 배웠으면 한다. 그래야 그런 현실에 부딪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무엇보다도 배웠으면 하는 것은, 사랑을 사랑하는 법을 늘 먼저 배웠으면 한다. 남이기고 성공하는 법은 될 수 있으면 배우지 않았으면 하고, 사람답게 행복하게 사는 법

을 배웠으면 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족한 줄 아는 법을 반드시 몸으로 배웠으면 한다. 가정 예배 때 늘 하는 이야기다.

사회가 어른들의 큰 욕심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로 부터 바라고 있으니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더 괴물이 되는 것 아닌가? 괴물로 키우기보다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것이 한 아빠의 솔직한 마음이다. 헨리 나우웬이 수도원에 있는 동안 비교 의식으로 괴로워할 때 수도원 원장이었던 존 유드는 이런 권면을 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시작하려는 마음이 들 때가 '목상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면 거기 이전부터 계셨고, 비교라는 게 있기 전부터 계셨고, 자신의 자아를 허락하신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을 지은 건 다른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며, 남들에 비해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비교 의식은 사탄이 불어 넣은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불어 넣어 주신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그러기에 아이들을 이런 비교 의식으로 키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쉽지는 않다.

이제는 다 커버렸지만, 여전히 아이들에게 바라는 소망이 있다. 1. 우리 아이들이 예수 잘 믿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은 이들을 저주하거나 정죄하는 죄 또한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신앙의 색깔과 맞지 않다고 자신이 하나님인 양 신앙의 색깔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3. 아이들이 정의롭게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불의를 행한 이들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대가를 받고 사죄했다면 그들을 비난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봐주시기를 또한 바란다. 4. 아이들이 자신과 다른 뜻을 가진 이들을 예수 이름으로 정죄하지 않고 바로 예수 이름 때문에 그들의 존재 자체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5. 아이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늘 생각하면서 도와주며 살기를 바란다. 6. 아이들이 자신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삶의 권리를 최대한 누리면서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더불어 타자의 권리 또한 존중해 주며 살기를 바란다. 7. 아이들이 세상의 아픔에 대해 '유체 이탈적' 심성과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8. 아이들이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삶을 살기 바란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으며, 마치 타자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들을 부속품처럼 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9.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세상에 유익한 직업이기를 바란다. 10. 아이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첫 사람이거나 혹은 마지막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바란다. 잠시 왔다 가는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11.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우주의 창조자시며 구원자시고 완성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한없이 체험하고 또한 그 사랑을 세상과 나누면서 살기를 바란다.

너무 큰 소원인가? 자신만 아는 이 보다는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소망한다.

담임(동사)목사 청빙공고

시카고 언약장로교회는 일리노이 주 시카고 북부 글렌뷰에 위치한 미국장로교단 PC(USA)에 소속된 교회로, 한국어(KM)와 영어권 차세대(EM)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여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실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요건

- 1. 미국 PC(USA) 교단 소속이거나 PC(USA) 가입이 가능한 분
-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정규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목사로 안수 받은 분
- 3.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
- 4. 한국어와 영어로 설교와 목회활동이 가능한 분
- 5. 목회 경력(Full Time)이 5년 이상인 분

제출 서류

- 1. 이력서 (사진 첨부)
 - 2. 목사 안수 증명서
 - 3. 학부 및 신학대학원 (M.Div) 졸업증명서
 - 4. 본인, 배우자 및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첨부)
 - 5. 신앙고백서 (chicagocovenant.org에서 download)
 - 6. 신앙 및 목회 경험 기록서 (chicagocovenant.org에서 download)
 - 7. 추천서 2부 이상 (추천인 전화번호와 e-mail 첨부)
 - 8. 최근 6개월 이내의 한국어 설교 (2편) 및 영어 설교 (1편) (동영상 file이나 website link)
-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제출 기한 : 2023년 4월 15일(토)까지

제출 방법

- E-mail : nominatingcommittee.ccpcc@gmail.com
- 주소 : Chicago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Attn: Elder Hyo Sup Kwon
1424 Greenwood Road, Glenview, IL 60025, USA

참고 사항

- 교회 홈 페이지 www.chicagocovenant.org
- 문의 사항은 E-Mail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은 하지 않습니다.
- 청빙되신 목사님께서 현 담임목사님의 목회관게 해소 시까지 동사무사님(2개월 이내)으로 사역하신 후 담임목사님으로 사역하시게 됩니다.

시카고 언약장로교회 청빙위원회

[크리스찬북뉴스서평] 어떤 비판에도 하나님 선하신 손길...

비판을 은혜로 받는 법



주최한 웨퍼드 콘퍼런스에서 '비판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신실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필자도 현장에서 그 설교를 듣고, 복음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교훈을 많이 얻었다.

조엘 비키는 퓨리턴 리폼드 신학교 총장이자 조직신학 교수이면서 헤리티지 화란 개혁주의 교회 목사이다. 콘퍼런스 설교를 기반으로 쓴 책 <비판 속에 있는 목회자들: 목사와 성도의 비판 대처 매뉴얼>에서 살펴볼 수 있듯, 학교와 교회의 책임자로서 비키는 많은 비판 속에 있어 왔기에 누구보다 비판 속에 있는 목회자들을 동정할 수 있고, 그 비판이 주는 상처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다.

저자는 특별히 한국 독자를 위한 서문을 썼는데, 거기서 그는 "우리 소망과 기도는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비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롭고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경험하는데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어떤 비판을 만나더라도 신실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6-7쪽).

저자 비키는 비판을 다루기 위한 성경적 기초를 먼저 쌓고(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통해), 비판을 다루는 실제적 원리를 네 가지 비판의 성격에 따른 대응으로 정리해 제시한다(현실적 수용, 겸손히 수용, 냉철한 판단으로 대응, 은혜로 반응). 또 교회 안에서 건설적인 비판을 하기 위한 실제적 원리를 사람과의 관계와 교회 전체의 문화로서 적용하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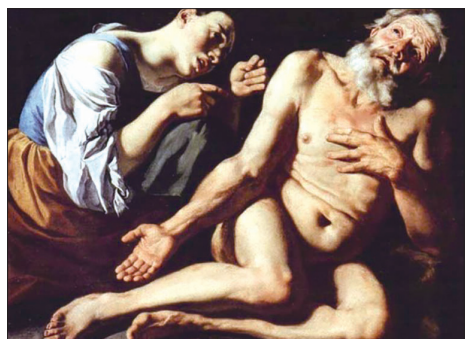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는 비판을 다루는 신학적 비전을 제시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세우며 마지막 날과 새로운 세상의 관점으로 비판을 바라보라고 권면한다.

부록엔 공동 저자인 니콜라스 톰슨의 글이 실려 있다. 신학교 시절 목회자를 준비하던 때 목회에서의 비판에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얻으려면 신학교 생활에서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열 가지 금기사항을 제공한다.

인류 최초의 비판은 하나님을 향한 마귀의 비판이었다. 거짓된 비판이었으나, 사람은 이에 동조하며 하나님의 원수 편에 섰다. 비판의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다. 그분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길에 수많은 비판과 정죄를 홀로 받으셨다.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정죄는 한없이 옳다. 하지만 하나님은 옳으심과 함께 불쌍히 여기는 것을 택하셨다. 우리 대신 정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사는 이렇게 헛된 비판과 올바른 비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경이롭고 아름다운 선을 보이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도 잘못된 비판을 참아내시고 아버지께 의탁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를 수 있다. 올바른 비판을 통해 우리를 빛으시



가스파레 트라베르시(1722-1770)의 '아내에게 조롱당하는 욥(Job mocked by his wife)'. 폴란드 바르샤바 국립미술관 소장. ©위키

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기대하며 바랄 수 있다.

특별히 조엘 비키가 비판의 성격을 분류하여 실제적 조언을 준 부분을 활용한다면, 목회자는 많은 불필요한 감정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염려하는 이들의 충고를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전혀 모르는 이들이 쏟아내는 사실과 무관한 비평은 무시할 수 있다.

목회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무작정

피해서도 안 된다. 비판에 대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은혜의 손길에 자기를 맡기는 것이 될 수 있고, 성도를 섬기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책은 목회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꼭 필요한 책이다.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목회자를 향한 자신의 비판이 어떤 성격인지를 점검하고, 건강하고 선하고 덕이 되는 비판의 도구로 자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훈련하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데, 비판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은 그중에서도 정말 필수적인 영역이 아닐 수 없다.

조엘 비키와 닉 톰슨의 <비판 속에 있는 목회자들>이 목회자 훈련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되어, 어떤 비판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담담하게 맡기신 임무를 기쁨으로 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한다.

조정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비판 속에 있는 목회자들
조엘 R. 비키, 닉 톰슨 | 김효남 역
언약 | 264쪽

목사와 성도의 비판 대처 매뉴얼

목회자들과 그들이 당면한 비판의 문제들을 성경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으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비판을 대처하는데 있어 큰 유익을 제공한다.

비판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유독 비판을 많이 듣고 또 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목회자들이다. 그들은 교회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리더가 그렇듯 비판의 포화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교회 전체를 위한 결정을 다수의 인도자 그룹과 함께 결정해도 모두 그 결정에 만족할 수 없고, 불만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불평과 판단의 말이 대표인 목회자를 향하게 된다.

또 완벽한 목회자는 없기에, 목회자가 가진 결점이나 약점 등이 비판의 내용이 될 때도 있다. 사역 규모나 은사 활용에 있어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목회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비판 속에 살아간다. 결국 목회자는 비판 밖에 있을 수 없으며, 언제나 '비판 속에' 있다.

2019년 조엘 비키는 캘리포니아주 선벨리에 위치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서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니
사도행전 2:28

그리스도의 향기
"As for God, his will the LORD is flawed who take refuge in besides the LORD except our God? with strength and ma"

You have made known to me the paths of life; you will fill me with joy in your presence.
ACTS 2:28

2023. 3. 4.H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매직스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 mystylist

편리한 위치-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Tel: 213-739-1022

서성록, 한 점의 그림 | 위그노 화가 자크 르 모웨의 꽃그림

“우리 눈에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16세기 가장 재능 있는 식물 화가 베일에 가려진 예술가이자 탐험가 자연을 하나님 만드신 작품 여겨 자연에서 하나님 찾아볼 수 있어

16세기 ‘가장 재능 있는 식물 화가’로 불리며 예술가이자 탐험가로 살았던 자크 르 모웨 르 모르그(Jacques Le Moyne de Morgues, 1533-1588)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일에 가려져 있던 화가였다. 미술과 자연사 분야에 대한 그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르 모웨의 존재는 미술사에서 수세기 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영국 빅토리아 앤 앨버트 미술관에는 『라 클레 데 샹』(La clef des Champs)으로 불리는 꽃그림집(Florilegium)이 있는데 원작자가 르 모웨이라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20세기 초반이다. 1922년 스펜서 새비지(Spencer Savage)가 빅토리아 앤 앨버트 미술관에서 자료를 조사하던 중 식물 중심으로 꾸며진 수채화 앨범이 르 모웨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그림 하단의 서명 ‘드 모르그(demorgues)’가 모르그 출신의 ‘자크 르 모웨’임을 밝힌 것이다. 하마터면 잊혀질 뻔 했던 그림이 되살아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르 모웨는 어떤 화가였을까? 그는 샤를 9세의 지시로 르네 굴레인 드 로도니에르(René Goulaine de Laudonnière)가 이끄는 북아메리카 원정대의 수채 화가로 참여했으며, 플로리다의 식물, 동물,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를 기록한 민속지학(ethnography, 인간 사회와 문화의 다양한 현상을 정성적·정량적 조사기법을 사용한 현장 조사를 통해 기술하여 연구하는 학문) 드로잉을 제작했다. 특히 플로리다 인근 토착 동식물을 사생하였는데, 그의 작품은 미 대륙 초기 유럽 묘사 중 가장 초기의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원정을 끝내고 프랑스에 돌아왔지만 르 모웨의 신앙, 즉 그가 프로테스탄트인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 역시 가톨릭의 종교탄압을 피하고자 못했다. 프랑스 전역에서 위그노 박해가 극심해지자 그는 영국으로 탈출하였다.

이때 금송공예가, 판화가, 건축가, 엔지니어, 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가 영국으로 도피하였으며, 이들은 영국에서 예술을 가르쳤고 책의 삽화를 담당하였다.

프랑스에서 훈련받은 예술가들은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우수한 기술로 환영받았다. 더욱이 당시 영국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복구하기 위해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위그노 신자들은 정직함과 근면, 탁월한 솜씨로 평판이 좋아, 커다란 반발 없이 영국 사회에 동화될 수 있었다. 모웨는 영국의 탐험가

윌터 롤리 경(Sir Walter Raleigh)의 일을 도왔고, 버지니아로의 탐험에 고용된 예술가 존 화이트(John White), 위그노 판화가 테오도르 드 브뤼(Theodor de Bry)와 교류하였다.

영국에 있는 동안 르 모웨는 미국 남동부 동식물군에 대한 수채화 시리즈와 삽화 등을 꾸준히 제작하였다. 이때 꽃그림은 곤충과 식물, 과일 등을 섬세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르 모웨가 꽃그림에 몰두하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당시 해양무역과 식민지 개척이 활발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멀리 떨어진 나라의 희귀하고 이국적인 식물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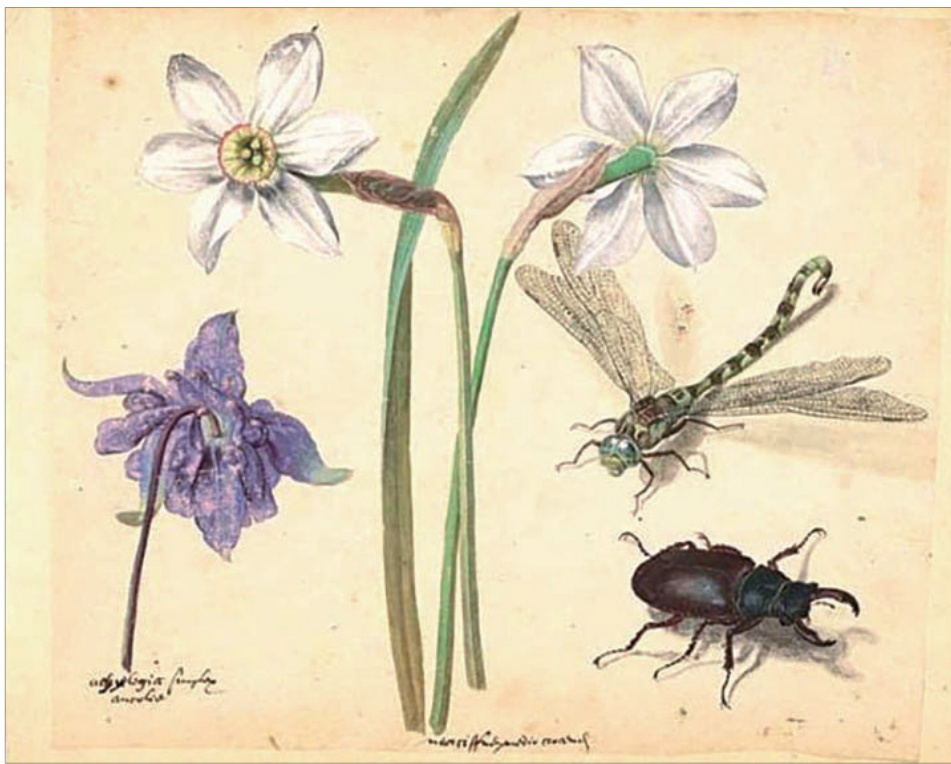
16세기는 탐험의 증가로 유럽에 세계 각지의 토종 식물들이 선보였고, 정원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였다. 점증하는 관심에 따라 이국적인 식물의 수집가들과 학자들 사이에서도 예술가들이 꽃과 식물을 기록해야 한다는 요구가 비등해졌다.

르 모웨는 지도와 필사본으로 명성이 높은 프랑스 도시 디프에서 기량을 익혔기에 꽃그림에 특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르 모웨가 꽃그림집을 착수한 배경에는 이 같은 시대적·문화적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다른 하나는 문화적 배경보다 좀 더 실질적이다. 이는 위그노 신자로서 그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 브리티시 박물관(British Museum)에 소장된 꽃그림집에는 소네트와 59점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화가로서는 기량이 무르익을 40대에 제작한 것이며, 르 모웨의 꽃그림집 중에서 가장 정교하고 섬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미술관에 있는 꽃그림집과 달리, 브리티시 뮤지엄의 소장품은 앨범 출판을 소네트(sonnet)로 시작하고 있다. 소네트의 구절은 꽃그림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설명해준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들을 애정의 눈길로 바라볼 때 확실한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오! 그분의 성호를 영원히 송축하며 찬송합니다. 그 분이 땅과 궁창의 모든 것을 만드셨음을 / 무엇보다 그 분은 머리를 높이 만드셔서/ 매일 아침 새 빛이 들어오는 것과 대지의 가슴을 온갖 꽃으로 장식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 풀이나 곡식, 파리는 없으며, 어떤 미미한 꽃이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색으로 봄이 오리라는 것을 약속합니다.”(Paul Hulton, The Work of Jacques Le Moyne, 1977)



르 모웨의 곤충, 식물그림, 종이 위에 수채와 잉크, 분필, 16.4x19.3cm.



르 모웨, 클로브 핑크와 메리 골드, 1575년경, 빅토리아 앤 앨버트 미술관 소장.

(Jacques de Geheyn)과 크리스피인 드 파스(Crispijn de Passe)로 대표되는 네덜란드 꽃그림의 시원을 르 모웨의 영향에서 시작한 것으로 분석하는데, 두 화가가 모두 르 모웨으로부터 “꽃을 사실적으로 관찰하고 재현하는 것과 꽃그림을 독립적인 그림범주로 인식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였다.

르 모웨 연구가인 폴 헐튼(Paul Hulton)은 그의 수채화에 대해 “그림들은 당시 프랑스나 영국 정원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거의 모든 식물들로 되어 있다. ... 그것들은 디테일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지만,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그림들은 눈을 즐겁게 하는 동시에 식물학자들의 과학적 요구를 충실히 만족시키는 식물 초상화이기도 하다. 이러한 미덕들의 조합은 르 모웨가 살았던 시대에는 전혀 볼 수 없었다”고 했다.

그의 생애는 큰 고비의 연속이었다. 신대륙에서 겪은 절체절명의 순간, 바돌로메 날의 위그노 대학살, 영국 런던으로의 탈출 등 위기를 맞이하면서도 신앙을 지켰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여기며 성실히 감당하였다.

그는 작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는 것 같다. “우리 눈에 아름답다. 그 분이 하시는 일! ... 이토록 선한 일을 하시는 분과 견줄 수 있는 이 누구인가?”(성 오프렘의 시중에서)



서성록 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기독교 신앙인으로 성장한 르 모웨의 신앙심은 그의 예술 세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화가로서 그가 듣고 배웠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땅과 궁창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이었다. 르 모웨에게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고 피조물이다. 실제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에 대하여 알도록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어떤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하면서 우리들이 보는 눈앞에 천지의 조직을 펼쳐놓으셨다”(칼뱅, 『장세기 주석』)는 사실에 기인한다.

르 모웨는 칼뱅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을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로 인식했으며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그 분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그는 네덜란드의 꽃그림을 만개시키는 데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미술사학자 김소연은 꽃그림의 대표적 화가 자크 그 헤인



유한양행 전용 농장의 통녹용, 한국 비무장 지대 유한양행 전용 농장의 통 인삼.

유한건강생활 NewOrigin

전녹용 마일드

녹용의 분골부터 하대까지 전체를 담은 뉴질랜드산 전(全)녹용과 23가지 전통원료를 함께 담아낸 건강 한 포.

전녹용 마일드,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활력을 충전하고 싶으신 분
✓ 원활한 영양 공급과 건강 관리가 필요하신 분
✓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체력 저하를 느끼는 직장인
✓ 여행, 출장, 운동 시 편리하게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 분
✓ 고급스러운 선물용 제품이 필요하신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cellreon.com 인터넷 검색창에 “셀리온”을 입력하세요!

셀리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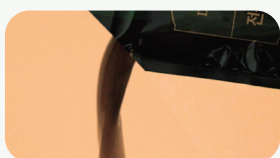


건강하고 아름답게 셀리온

LA 코리야타운 플라자 2층 213-738-1188
부메나팍 소스물 1층 714-523-8100
엘배인 시온마켓 정문 왼편 949-800-8788



70ml x 30 포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특혜 / 30% Tax Credit

(PG&E, SCE 및 SDG&E 전기를 사용하는)
솔라를 설치 할 수 있는

교회가

마지막 기회!!

3월 15일 까지

타사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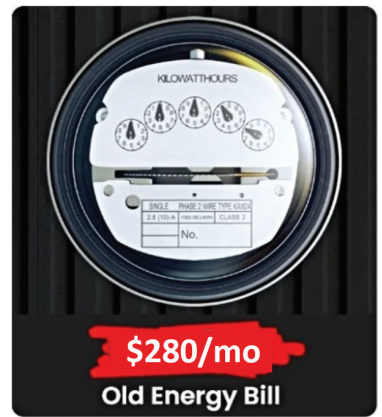
30% 저렴하게 설치!!

관련기사보기 >



전기세가 11달러?!

**2023년
대박**



**100%
Made in
US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1년 뒤 부터 Payment
-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 ✓ **EV Car Outlet Fre**



***** 돈 한푼 안 들이고 전기세 70~80% 절감 *****

다른 솔라 업체에 문의 후 BTS 솔라에 연락해서 비교 평가하여 결정하십시오!!

www.btssolardesign.com

TALK BTSSolar

*소개 해 주시면 500불을 드립니다

213-500-8000
714-702-0151

CELLSPARTNER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십시오.

1. 문의 전 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 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